

## 팬인가 제자인가 (막 1:16-20)

2001 년도에 소설가 최인호 원작의 [상도]가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그것이 상도다.” 상도가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면, 교회와 성도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교회와 성도가 이 땅을 살다가면서 무엇을 남기고 가야 할까요? 교회는 적어도 몇 십년 앞으로를 바라보며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내가 가르친 세대가 10-20 년 후에 지금 나의 자리에서 하고 있는 일을 더욱 훌륭하게 해낼 수 있도록 제자를 키우는 성도야말로 성공한 성도가 아닐까요? 지금 세대의 부흥에 만족하지 말고 그 부흥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되어 끊임없이 애쓸 때 결과적으로 10-20 년 후에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제자를 남기기 위해, 제자를 키우기 위해 어떤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카일 아일드먼(Kyle Idleman)이 쓴 [팬인가, 제자인가]의 책, 맨 뒷장인 에필로그를 보면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는 수십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낙농 회사의 상속자로 태어났지만, 세계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중국에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아랍어를 배우고 이슬람 지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이집트로 건너갑니다. 그런데 그만 그곳에서 척수막염에 걸려, 한 달 뒤에 스물다섯의 아까운 나이에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윌리엄의 삶을 보면서 어리석다고 말한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가족과 재산, 미래까지 다 내팽개쳤지만, 결국 선교지는 구경도 해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윌리엄의 삶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의 인생이 결코 실패가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팬(Fan)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 \_\_\_\_\_

2) \_\_\_\_\_

3) \_\_\_\_\_

3. 예수님 당시에 많은 팬이 있었지만, 팬이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 강 건너편에서 ( )가 따르니라” (마 4:25)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 오시니 ( )가 따르니라” (마 8:1)

4.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운 세 가지 목적이 무엇이며, 이 목적을 기반으로 제자와 팬(무리)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보시기 바랍니다. (막 3:14-15)

1) \_\_\_\_\_

2) \_\_\_\_\_

3) \_\_\_\_\_

5. 제자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위탁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 위험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일임을 알고서도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한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

**[적용]** 오늘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 적용하여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 주님의 제자가 아닌 주님의 팬에 불과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제자로 세우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 지금 이 시간부터 주님의 팬 클럽, 팬 카페에서 탈퇴 선언과 함께 주님의 반열에 서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